

중세 일본의 종교문화와 노의 성립 -김현욱선생님

일본 연구소의 관심 분야 일본의 전통문화와 고대한일 비교 문화를 전공하신 김현욱 선생님은 노에 관련하여 일본의 전통 가면극, 노(能)의 형태와 일본에서의 쟁점에 대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노에 대해 느리고 귀족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는 다른 좀 더 빠른 템포의 극도 존재한다. 유명한 부석사의 설화를 극화한 것으로 추측되는「道成寺」는 뱀의 정령이 절에 나타나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는 내용이다. 「노」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시공을 초월해 같이 등장하는데, 신, 남성과 여성, 귀신이 출현해 인간의 고뇌와 영혼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게 주조를 이룬다. 배우들은 모두 남성이며, 극에서 여성 역이 나와도 남성이 남성 본래의 목소리로 연기한다. 춤은 모두 정형화되어 있지만 각 극마다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또 연기를 할 때 머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노」연기자들은 보통 4~5세에 배우기 시작하지만 신인상을 받는 연기자는 대부분 60대정도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의 음악은 세 종류의 북과 하나의 피리, 4종류의 악기들로 연주되며, 각각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지 않는다. 일본에서 노가 성립되기 전에는, 아악을 중심으로 정확한 하모니를 중요시했으나, 「노」가 등장한 후 전혀 새로운 음악세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는 원래 천민 예능 집단이었던 강아미와 제아미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오키나사루가쿠」(翁猿樂)를 뿌리로 하고 있다. 「오키나사루가쿠」는 어떤 즐거리를 가지지 않고 천민예능 집단이 신사나 절에서 공납의 의미로 상연되었던 주술적인 극을 말한다. 당연히 그들이 처음 「노」를 고안할 당시는 현재의 귀족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이 것에서 「道成寺」같은 빠른 템포의 「노」가 등장했으나, 어떻게 즐거리가 없는 「오키나사루가쿠」가 「노」로 변화되었는지, 강아미와 제아미가 어떤 요소를 첨가하여 지금의 세련된 「노」로 성립시켰는지 정확한 배경이 전해지지 않는다.

「노」에서 주인공은 일본 고전이나 중국고전 인물들로 고전에 대한 소양이 있는 상류층의 인물들이 주로 「노」의 관객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로마치의 3대 장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노」를 즐겼던 대표적 인물로 「노」의 귀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요시미츠는 제아미와 내연의 관계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또 다른 일본 전통 극인「텐가쿠」에 비해 인기가 적던 「사루가쿠」의 인기가 더 많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아미는 귀족적 성향을 동경했던 요시미츠의 성향을 파악하고 「노」를 귀족적 성향으로 변화시켜나가, 제아미 후기에는 「노」가 점점 고풍스러워 진다.

그렇다면 「노」의 기원으로 알려진 「오키나 사루가쿠」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키나 사루가쿠」에서 사용되었던 하회탈과 비슷한 할아버지 형상의 “키래아고 가면”으로 일본에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다. 오키나사루가쿠는 주술적 연회를 하던 천민 예능 집단(사원의 주술예능: 신의 힘으로 도깨비를 쫓아냄)이 고안해낸 것으로 오키나 신은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키나”라는 신이 연극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강아미와 제아미도 자신들의 연극 연출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오키나 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오키나 신, 즉 할아버지 형상의 신들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건너 온 도래인들이 섬겼던 신으로 중세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할아버지 신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세 이후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래집단인 하타씨가 할아버지 신들을 적극적으로 모셨고 강아미 제아미는 자신의 본명의 성을 말할 때 하타씨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노의 근원을 밝힐 때는 일본

내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산악신앙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Q: 슈켄도(산악신앙)는 굉장히 토착적이고 주술적인 일본고유의 신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현욱 선생님은 오히려 한반도를 강조했다. 그 사실 관계와 이런 연구 결과들이 귀납적인 결과인지 연역적인 결과인지, 또 노에 관련한, 한반도의 영향에 대한 일본 학계에서의 지위는 어떠한가?

A: 슈켄도는 불교, 신도, 도교 등 많은 종교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신앙이다. 그런데 슈켄도의 대표적인 신인 이나리신, 하치망 등은 대부분 한반도 계열의 신들이다. 또 일본의 슈켄도의 대표격인 키코산의 신앙은 신라의 화랑도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슈켄도와 한반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한반도와 노의 관계는 우연한 발견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아직도 아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도래인인 하타씨 계열이 많고 하치망의 사원 사람들도 하타씨 계열이다. 예능 계열은 하타씨와 관련이 많고 하타씨는 한반도 도래인이라는 것을 문헌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예능 학계에서 노와 한반도에 관련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받아 신인학술연구상은 수여 받았다.

Q: 현재 「노」에서 나타나는 오키나 신앙의 핵심, 원형은 무엇인가?

A: 오키나 신앙은 오키나(할아버지)로써 나타나는 신들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나라의 산신령 신앙과 비교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노」에서 나타나는 오키나의 핵심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또 오키나는 샤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저 신들 중에는 오키나의 모습을 가진 신들이 있고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키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도와 구분을 했다. 그런데 오키나 신앙의 특이점은 예능인들에 의해 많이 섬겨졌다는 것이다. 진치쿠가 오키나 신의 정체에 대해 쓴 책을 보면, 여러 신들을 언급하고 결국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채, "오키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들은 모두 "오키나"이며 "오키나"는 위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결국 당시에 오키나 신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신비롭고 의문의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다.